

전주시, 정보통신기술 분야 창의적 인재 키운다

(ICT)

남원스위트호텔에서 '스마트 디바이스 아이디어 캠프' 개최

전주시가 지역 대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빅데이터와 모바일, 웨어러블 등 ICT(정보통신기술)분야의 창의인재 양성에 나섰다.

전주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서문상)과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는 지역 내 K-ICT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를 선도하고 창작문화 확산을 위한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22일~24일까지 3일간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2016년 스마트 디바이스 아이디어 캠프를 개최했다.

이날 김성필 국립재활원 박사는 '스마트 디바이스와 인공지능'을 주제로 전북대학교 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기본 철학 등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

또 (유)플레이코딩 교재관 대표의 IoT on Device 창작교육 등 아이디어 사업화 교육과 멘토링 등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IoT(사물인터넷)를 구성하기 위한 센서 활용부터 네트워크까지 시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센서의 의미를 익히고 최신 기술 트렌드부터 창업 사례이론까지 기술창업의 모델을 개발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앞으로 진흥원과 전북대는 이번 캠프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향후 경진대회를 통해 추후 사업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서문상 전주시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대학생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 최신 기술

트렌드와 사업화 과정을 체험하며 향후 ICT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 성공 창업가로 성장하고 관련 산업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남희 전북대 창업교육센터장은 "지역 산업과 연계되는 우수한 창업인재를 양성하고 성장 시키도록 도내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해 다양한 분야의 청년 창업 인재를 발굴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손재호 장수로타리클럽 신임회장 취임

지난 24일 오후 6시 30분 장수 나볼리조트에서 국제로타리 3670지구 신창 이근형 차차기총재, 김윤섭 부군수, 오재만 군의장 및 내외빈 150여명이 참석하여 국제로타리 3670지구 장수로타리클럽 제40대 회장에 손재호(50세, 김제시신림조합 상무)씨가 취임했다.



손재호 씨

방산 손재호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로타리 인류에 봉사하자 테마처럼 큰것보다 작은 것부터 살피고 나아가서 지역에 작지만 아름답고 향기있는 봉사의 꽃을 피우려 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손재호회장은 지난 2006년 국제로타리 장수로타리클럽에 입회했고 신임 조합에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매사에 근면 성실하다는 평을 받으며 사회에서 모범적으로 활동해 왔다.

손회장은 부인 김은숙씨와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장수=고관호기자

완산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금지 계도 캠페인

완산구(구청장최학취)는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 주차차량과 주차방해 차량 근절을 위한 계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차량과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지난 장애인 이동권 행사에 동참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에는 행정자치부 생활불편 신고앱을 이용한 민원신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시민이 몰라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유정옥 가족청소년과장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인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

부안해경, 부안·고창 해수욕장 순회 정화활동 펼쳐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부안해안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가 지난 9일부터 23일까지 부안과 고창지역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안전한 물놀이와 관광객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대규모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번 정화활동은 격포, 변산, 고사포, 모항, 명사십리, 구시포 해수욕장 등 총 6개소에 대해 부안 해경을 비롯한 35사단 부안 대대, 고창 대대 및 공군 8551부대 장병 200여 명과 부안군 새마을운동본부회 등 자원봉사단체와 11개 기관 단체 등 400여 명이 참여했다.

더욱이 빈 강릉 개진 유리조각, 스티로폼, 페트병 등 해안가 쓰레기 20여 톤을 수거 피서객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은 참쾌한 상권을 부활시킬 수 있는 신호탄 역할을 해 주었다.

매회 정화활동에 매회 참여한 전현명 서장은 "부안과 고창 해안은 전체의 관광지로 이번 정화활동으로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순창경찰서, 여성 범죄 예방 호신용 경보기 기증 받아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운)에서는 최근 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경찰발전위원 및 과장 파출소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장 수여 등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상반기 위원회 활성화 및 협업체간에 공이 많은 박창흠(56), 공교환(54) 위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으며, 여성대상범죄 사례 등 경찰 대응에 대해 자체 제작한 영상을 시청한 후 안전된 지역차이를 지원하는 데 다양한 의견 제시했다.

김종국 경찰발전위원장은 경찰협력단체로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여성대상범죄에 대한 안전한 순창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호신용 경보기를 기증하기로 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내 고장 주소 갖기 캠페인 실시

정읍 입암면, 정읍시 인구 15만 회복을 위해

정읍시 입암면은 지난 24일 면사무소 직원과 이장단 협의(협의회장 소성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시 인구 15만 회복을 위한 내 고장 주소 갖기 캠페인'을 가졌다.

면은 이날 입암 대중초등학교 및 지역 내 유관 기관을 순회하며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이날 참가자들은 학교 3개소와 우체국, 농협, 파출소 등 유관기관 임직원 및 교사들에게 인구 늘리기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전입 시 혜택 등을 설명하고 정읍으로의 주소이전을 적극 권려했다.

입암면 관계자는 "인구회복을 위해 이번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영장류지원 지원센터 건립과 철도산업특화단지 조성 등 맞춰 근무자의 전입유도를 위한 환경정비 및 각종 편의 시설 설치 등을 통해 근무자 및 가족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행정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완산경찰서, 치안업무 유공 경찰관 표창 수여

전주완산경찰서(서장 장하연)는 지난 24일 치안업무 유공 경찰관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표창장을 수여받은 경찰관은 모두 7명으로 강령태장 신수용 경위, 형사팀 석원용 경위, 여성청소년수사팀 정진욱 경위, 완산범죄수출대 체정석 경위, 기동순찰대 권희성 경위, 삼천지구대 김희주 경사, 서학파출소 이국인 순경이다.

신 경위는 강도범행을 목적으로 차량번호판을 절취해 범행도구로 이용하려던 강도여비·음모 피의자를 검거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석 경위는 휴게소에 커피전문점 입점을 미끼로 4명으로 구성된 10여8천만원을 받아 챙긴 뒤 도주한 수배자 검거 유공으로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표창을 수여 받은 경찰관들은 "노력의 탄방울로 수상의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 활동으로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완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장하연 완산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한 경찰관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안진수기자

정읍경찰서, 김가원 경감 등 3명 정년퇴임식 가저

정읍경찰서(서장 김주원)는 지난 24일 오전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경찰서장 각 과장 및 지구대·파출소 동료 경찰관과 강광 전 서장 경유회장, 경복실장 경찰발전위원장 등 협력단체장,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년퇴임식 행사를 개최했다. 퇴임을 하는 산외파출소 경감 김가원, 북면파출소 경위 김종문, 정우 치안센터장 경위 박흥식은 뜨거운 가슴과 불타는 열정으로 짧은 날 수 십년간 경찰에 투신해 멋지고 훌륭한 경찰 업무를 마무리하고 정년퇴임과 동시에 제 2의 인생을 시작한다.

이날 퇴임식 행사는 감동적인 퇴임사와 후배 송별사, 퇴직자의 경찰인생 전부를 담은 동영상, 사랑하는 가족이 준비한 아버지에게 드리는 편지와 즐거운 난타반 김평호 선생팀 등 6명, 의경의 노래공연, 신임경찰관의 댄스공연, 북면파출소 윤철구 경위의 '보고싶다 내사랑, 복지클럽의 '아름다운 밤' 댄스공연 등 행사 내내 다채롭고 흥겨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영예로운 퇴임을 맞이한 김가원 경감은 "36년간 몸담았던 경찰조직을 떠나면서 함께 근무했던 소중한 인연과 아름다운 추억을 마음 속 깊이 간직했다. 같이 근무하면서 섭섭함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후배가 있다면 일을 잘해 보겠다는 욕심에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란다. 후배 여러분 정말 행복했고,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종문 경위는 "36년이라는 긴 시간동안의 경찰 생활을 마치고 사회 초년생으로 돌아간다. 재입가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동료들의 관심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있어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동료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임실군노인복지관 -임실우체국, 소원 들어주는 우체통 운영

임실군노인복지관(관장 한갑수)에 외로운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소원 우체통'이 설치된다.

소원우체통은 임실 지역 저소득 노인들의 소원선취와 욕구파악을 목적으로 5월부터 9월까지 어르신이 직접 편지에 소원을 적거나 사연을 적어 발송하면 임실군노인복지관과 임실우체국은 사연을 보낸 어르신 20여명을 선정해 오는 11월 첫째주 '행복나눔' 기간에 찾아가 소원을 들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임실군노인복지관과 임실우체국은 지난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갑수 관장은 "이번 소원우체통 행사를 통해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상공회의소, 기업비용절감 비법 전수 교육

"비용절감 업무 프로세스 및 실제 절감 사례 등을 통해 외부 도움없이 기업 스스로 비용을 분석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절감방안을 찾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주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기업비용 절감 비법전수 교육에서 강사로 나선 김진근 코스트인사이드(주) 대표이사가 강조한 말이다.

지난 24일 전주상공회의소 5층 대강당에서 도내 기업체 기획 및 총무담당 부서장 및 실무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업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기업 비용절감 비법 전수교육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김진근 대표는 기업 지출비용에 대한 이해와 진단, 기업 비용절감 실무 프로세스, 비용 최적화 방안 수립 등에 대한 설명을 왜?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동영상과 생생한 사례 등을 전했다.

특히, 김 대표는 "비용은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적화 해야 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생존을 위해 현재 지출하고 있는 비용은 물론 향후 예상되는 비용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눈에 보이는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교육은 서울, 대전, 광주 등 대도시에서만 개최되는 교육과정으로 도내 기업 담당자들이 비용절감을 위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을 착안,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적극 유치하여 개최된 교육이다. /신광영기자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여성안전 취약지 공·폐가 일제점검

익산경찰서(서장 이동민) 중앙지구대(대장 김용대)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 상대 범죄를 예방하는 동시에 대국민 치안민족도 향상을 위해 남중동·중앙동 공·폐가 등을 대상으로 방범진단 및 빈 공간 곳곳 일제수색을 실시했다.

이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안요소를 제거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눈에 쉽게 띄지 않는 범죄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수색하고 범인도피·은신 및 범행유류 흔적 파악 등에 주력했다.

특히, 남중동과 중앙동은 주택밀집지역으로 29개소의 공폐가가 밀집되어 있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노숙자나 가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점검과 수색활동을 전개했다.

김용대 중앙지구대장은 "안전한 익산을 위해 여성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 및 순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치안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16년 1월 25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 5609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4층 (서노송동)	
부회장 김승근 전무 김관춘 편집국장 이백수			
•대표전화 288-9700 •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종인시	남원시	고창시
010-9695-418	인후시	김제시	임실시
삼천시	송천시	완주시	진안시
010-2333-499	필북시	남원시	정읍시
서신시	군산시	순창시	장수시
010-895-9955	익산시	부안시	무주시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